

# 東洋의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

## 儒敎와 自然觀의 빈곤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착하게 태어나는 것이라면 인간은 적당한 敎育을 통해 그 품을 잃지 않게 만들수 있으며 그런 까닭에 인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敎育과 정치이다.

原始儒敎가 갖고있던 自然에 대한 무관심은 漢代이후 수정되어 갔다. 그러나 儒敎가 원래부터 강조해온 敎育과 정치에 대한 유난스런 관심은 그후 지금까지도 儒敎文化圈의 중요한 특징이며 병폐로서 남아있다. 또 漢代이후 유교가 발전시킨 自然觀도 어디까지나 副次的인 것이었을 뿐 自然 그 자체를 이해하려는 노력에 이르지 못했다. 自然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의 노력이 바로 자연과학의 전제라고 볼때 유교는 과학을 낳기에 크게 부족한 知的傳統이었다고 판정내릴 수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儒敎는 그 처음 단계부터 技術에 대해서도 賤視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런 점은 서양과학이 시작하는 그리스에서도 큰 차이가 없지만... 儒敎가 이상으로 삼는 人間像은 孔子가 규정한 君子不器(〈論語〉爲政)란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君子는 한가지 일에 전문가가 되기 보다는 모든 것에 두루 통해야 한다 그렇다고 孔子가 말하는 여러가지가 온갖 기술을 뜻한 것은 아니었다. 그는 스스로 젊었을 때 고생하여 여러 가지 재주(藝)가 있다면서 그런 것들은 君子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천한 일」(鄙事)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子罕). 孔子와 孟子는 지배층과 피지배층(民)을 구분하고 이런 생산기술은 백성이 배울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原始儒敎의 전통속에서는 과학도 기술도 自生하기

어려운 형편이었다.

## 道家의 自然主義

유교가 인간과 인간의 문제 즉 社會속의 인간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과는 달리 道家의 사상은 인간 보다는 自然을 중시하는 태도였다. 道家라는 표현 자체가 “道”란 말에서 나온 것처럼 老子(기원전 5세기 경?)와 莊子(365~290BC)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총괄하는 리듬이 있으며 그것이 바로 道라고 주장한다. 道는 自然에서 얻어지는 것이며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나 또한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道常無爲而無不爲—〈道德經〉爲政無) 爲自然을 최고의 이상으로 내세우는 道家에서는 人爲의인 일체의 것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규정한다.

인간이 불행해지고 사회가 혼란한 까닭은 사람이 自然상태를 벗어나 소위 文化를 발달시켜 가기 때문이다. 인간은 모든 지식, 욕망, 도덕, 법률, 기술을 버리고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진정한 인간성을 되찾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기에 老子는 최고의 품은 물과 같다. (上善若水—道德經)易性)고 갈파하기도 한다. 지나치게 스스로를 내세우지 않고 그럼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물이야말로 가장 道에 가깝다는 것이다.

莊子が 말했듯이 소나 말이 네다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天(自然이란 뜻)이고 말의 목에 갈래를 썬우고 소의 코를 꿰는 것이 人(人爲)이다. 道敎에서는 인간을 大自然의 일부로 보고 自然은 그대로 있을 때 가장 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儒敎가 자연을 완전히 무시한채 인간사회만을 대상으로 한 것과는 달리 道敎의

- …… 우리는 흔히 現代 發明科學은 17世紀 이후 西洋에서 始作된 것의 延長으로 東洋의……○
- ……發明科學과는 關聯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크게 잘못된 생각……○
- ……이다. 發明科學史는 西洋의 것만이 아니라 東洋의 것도 包括하고 있기 때문이다. ……○
- ……특히 東洋 發明科學史 중에서도 지금 우리의 血管속에 흐르고 있는 韓國 發明……○
- ……科學史의 背景을 이루는 中國의 發明科學的 傳統에 이해가 극히 重要함을 느끼게……○
- ……된다. ……○
- ……이와 함께 佛敎를 통하여 우리의 傳統文化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준 印度의 自然……○
- ……觀과 우리와 비슷한 傳統에 속하면서도 재빨리 近代 發明科學과 技術의 수용에 成……○
- ……功하여 先進國으로 成長한 日本의 近代 發明科學의 발달상을 살펴볼 必要가 있다. ……○
- ……이에 本誌는「韓國의 發明 그 뿌리를 찾는다」에 이어「東洋의 發明」의 뿌리를 追……○
- ……跡해 보았다. ……○ <編輯者 註> ……○

근본정신은 自然主義였다고 하겠다.

유교와는 달리 道敎의 전통속에서 중국인들은 자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自然에 대한 관심 자체가 그대로 自然科學을 낳는 것은 아니다. 道敎의 경우에도 그 自然에 대한 관심은 몇가지 경향으로 전개되어 갔다. 우선 自然속에 감춰져 있는 道의 정체란 말처럼 쉽게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道敎에서는 자칫 얕이란 불가능하거나 값진 것이 아니라는 태도를 낳는 수가 많았다. 老子도 이미 髡를 버리라고 권하고 있지만 莊子에 이르면 不可知論的인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나타난다. 莊子는 “삶은 유한하지만 얕이란 무한하다.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따름은 위태할 따름”(吾生也有涯 而知也無涯 以有涯隨無涯殆矣—(莊子)養生主)이라고까지 말하고 있다.

얕에 대한 본질적인 회의 이외에도 道敎는 강한 神秘主義경향을 갖고 있다. 한마디로 道라지만 그저 막연하고 신비스런 것은 있을 수 없다. 이 때문에 道敎의 전통은 뒷날 生命의 신비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큰 관심을 낳았고 그것이 養生說로 발전했다.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치료하고 수명을 연장하려는 노력이 神仙術·鍊丹術·房中術등의 이름아래 은갓 擬似科學(pseudo-science)을 중국역사에 남게 되었다. 이런 노력은 특히 醫學의 발달에 크게 기여하기도 했고 不老長生の 약(丹)을 만들려는 鍊丹術의 노력은 서양에서 크게 발달한 鍊金術이나 마찬가지로 화학적인 지식을 길러주기도 했다.

그러나 道敎가 가진 自然主義는 지나치게 自然만을 강조한 결점이 있었다. 인간과 自然사이에 조금 거리를 두고 自然을 관찰하지 못한채 인간이 지나치게 自然속에 파묻치기를 강조했다. 그결과 道敎의 자연에

대한 큰 관심은 그다지 科學발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東洋科學의 많은 부분은 그나마 道敎의 전통속에서 이룩된 것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된다. 뒷날의 儒敎는 道敎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갔기 때문이다.

### 墨家의 人格天과 論理學

<中國哲學史>로 잘 알려진 馮友蘭은 道家가 自然을 강조한 것과는 달리 墨家는 人爲를 강조했으며 儒家는 그 중간에서 있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墨家의 사상은 전국시대에는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통 墨子(이름은 墨翟, 479—381 BC)라 알려진 그 창시자가 실제인물이었는지는 확실한 것은 아니다.

여하튼 오늘날 <墨子>라는 책으로 남아있는 墨家사상의 중심이 되는 생각은 利라 할 수 있다. 모든 가치 있는 일은 인간에게 有利하기 때문에 지켜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주장에 의하면 正義도 다름아닌 利益이기 때문에, 관철되어야 한다. 墨子는 낭비를 줄이라고 가르쳤고 또 儒家가 가르치듯 쓸데없이 장례치르는 절차를 복잡히 하지말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역시 儒家와는 반대로 음악을 배척하기도 했다. 이 모든 비판의 근본원인인 이런 것들은 利를지 못하다는 것이었다.

墨家는 反戰論으로도 유명하다. 그들이 전쟁을 반대한 이유도 바로 利에 어긋난다는 때문이었다. 전쟁은 지는 쪽에게만 不利한 것이 아니라 이기는 쪽에게도 결국 不利하다는 주장이다. 역설적이게도 墨家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은 공격이 아닌 防禦를 위한 전쟁기술의 개발에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는데 그것은 전쟁을 방지하려는 그들의 태도에서 온 것이었다. (계속)